



현장탐방 이곳이 선진 제조 현장

신젠타코리아(주) 익산공장

‘농민의 바람을 현실로 · 들녘을 기름지게’ 만드는 기업

짧은 이력 불구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 전북 수출 대상’ 등 수상경력 알차
글로벌 ‘선두기업 명성’ 유지 위해 54명 임직원 불철주야 노력

ㄷ 라마 ‘서동요’ 촬영지로 세인들의 관심
— 을 듬뿍 받고 있는 지역이며 백제문화의
본고장인 익산. 먼 길을 재촉해 익산 IC에 들어
서자 ‘보석의 고장’이란 커다란 문구가 시선을
멈추게 한다. 백제인의 놀라운 보석세공 기술과
정교함의 유산이 마치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농약산업과 일
맥상통한다고나 할까.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
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여섯 번째의 장
(場).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터로 대표되는 백제
문화 수도이며 국토의 중간지점인 익산에 위치
해 있어 각종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한 신젠타 코
리아(주) 익산공장(생산부장 金東元)을 찾았다.

13제조라인, 54명 임직원 불면불휴

“신젠타는 일본에 농약을 수출하는 국내 유일
의 기업입니다. 일본 농약시장은 국내 시장 이상
의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곳으로 수출 품목에
대해 전수 검사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
내 어느 경쟁사 보다 품질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국
내에서만 지니고 있을 순 없습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기후가 우리나라
와 정반대인 호주 주변의 작은 여러 나라까지 수
출함으로써 공장의 연중 가동을 가능케 할 계획
입니다.” 신젠타 코리아(주) 익산공장의 생산현
장을 책임지고 있는 金부장의 일성이다.

신젠타코리아의 역사와 뿌리는 깊고 다양하
다. 근래의 변화만을 보자면, 1998년 스위스 노
바티스사가 동양제철화학 농약사업부문 및 익산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가 설립되었고 이듬해에 동양제철화학 대전공장 직원이 익산공장에 합류하였으며 2000년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익산공장 증설을 완료하였고 2001년에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신젠타코리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대지면적만도 2만5천평, 건축면적이 1만여평에 이르는 익산공장의 올해 생산목표는 수출물량 5천5백톤을 포함, 1만7천톤에 이르며 약

장은 “HSE와 품질관리, 인센티브 제도, 근무분위기”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HSE가 잘되는 회사가 경영이 잘되는 회사”라는게 최고 경영자의 방침이라며 HSE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고품질 제품생산으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 수출하는가 하면 개인의 성과에 따라 50~150%까지 차별화 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분방한 근무분위기는 적지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70%정도 생산이 완료된 상태이다. 총 54명의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13개 제조라인에서 입제 및 수화제, 조립식 수화제, 유·액제 등 모든 제형의 작물보호제 생산이 가능하다. 또 16개 자동포장 라인에서 국내·외 최신 포장시설과 자동 적재 라인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익산공장의 수상경력은 알차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0년에 받은 익산 상공 대상을 비롯, 2002년에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엔 전북 경제 대상을, 2006년에는 전북지역 수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제1회 전북 수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별화된 복리후생·교육, 고품질 제품생산으로

타 공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김부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 김부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HSE정책을 각 현장의 모든 직원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매년 그 결과를 미국 증시에 제출, 투명성을 확보하며 스위스 본사에서 2년마다 HSE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 직원이 연 일주일 이상 외부 전문 기관에서 HSE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하는 한편 대기 배출량 및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극대화 등 환경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대기 배출 시설의 4단계 필터링 시스템 또한 자랑거리라”며 자랑을 이어간다. 무재해와 관련하여 ‘아차 사고’ 보고 시스템을 실시, 직원과 협력 업체 그리고 기타 방문자들이 현장의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보고서를 작성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

단다. 이 외에도 직무 훈련 인트라넷을 통한 직무 훈련을 Global Project에 의거, 각각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수기인 6~7월에는 전 직원을 한국 폴리텍 V대학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해에는 전 직원의 70%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 금융 전문가 및 외부강사를 초청, 재테크 교육은 물론 각종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방어운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램을 가동하는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과 교육에 대한 자부심도 적지 않다.

끝으로 金부장은 “신젠타는 농약산업의 글로벌 선두 기업답게 공장 제조 시설에 대한 공해 방지 시설 완비와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지역 사회의 환경 보존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 종업원과 관련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없는 공장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

미니 인터뷰

金東元 생산부장

■ 선진 외국기업으로서 어려운 점과 국내 농업에 기여한 실질적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국내기업에 비해 다소 배타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정착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신젠타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어려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젠타는 전 직원이 봉사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농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경주한 덕분인지 지금은 비교적 초창기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신젠타는 국내 농약회사로는 최초로 GTM(Go To Market)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인 농민에게 직접 다가가 안전하고 적기에 사용하는 방법 등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제1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농약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외람되지만 “신젠타”라는 기업명이 다소 어렵고 낯선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 기회에 기업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요. 우선 신젠타(Syngenta)의 신(Syn)은 희랍어로서 “통합의 상승효과 및 통합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강점”을 의미합니다. 젠타(genta)는 라틴어로 “인류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개인”을 의미하므로 결국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현재 일본 중심의 수출노선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원년을 만들고자 하며 물량도 지난해보다 약 2배 정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 일환으로 ‘그라목손 인티온’을 기후가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Austronesia(호주 주변의 작은 여러 나라)까지 수출함으로써 공장의 연중 가동을 가능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용 살균제 안빌의 베트남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스리랑카에도 올해부터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WCI(World Class International)와 연간 계획을 맺음으로써 공장의 합리화를 통한 시설보완 및 효율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